

11월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

천 일 영

- (내용) 정부는 11월 대란설의 진원지인 투신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각각 2조 원, 1조 원 등 총 3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 코스닥 시장에 등록시킨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종합안정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기타 투신사들(한국·대한투신 제외)은 최근 대주주 책임 아래 유상 증자와 외자유치 등을 추진하여 대우채 부실에 따른 손실을 조기에 해결하기로 함
 - 투신이 보유하고 있는 18조 원의 대우 무보증채를 성업공사 채권으로 바꿔 유통시키는 방안을 비롯하여 환매가 제한된 금융기관 보유 수익증권의 단계적 제한 해제, 그리고 서울보증보험 정상화 방안 등도 포함됨
- (효과)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음. 우선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 이미 증시에 대부분 반영되었으며, 5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투신권의 필요자금(대우관련 채권 5조2천억원, 자본잠식 1조9천억원)에 비해 3조 원의 공적자금 규모는 미흡함
 - 이번 정부 대책은 당장의 현안인 투신사의 대량환매 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
 - 한투와 대투를 제외한 기타 투신운용사와 증권사 등이 과연 대우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임
 - 또한 한투에 2조원, 대투에 1조원 정도를 투입하더라도 양 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될 지는 여전히 의문임
 - 특히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우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도 내년 들어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을 소지가 큼

(iycheon@hri.co.kr ☎ 724-4013)

최근 주요 정책(1999. 10. 25 ~ 10. 31)

9월 중 경상흑자 24.3억 달러 기록	한국은행 (10.29)	- 9월에 수출 11% 증가(119.6천만 달러), 수입 39.5% 증가(101.2천만 달러)하며 경상수지 흑자가 24.3억 달러를 기록 - 이로써 1~9월 누계 경상수지 흑자는 191.6천만 달러에 달함
외국환거래 규정 대폭 수정, 시행	재정경제부 (10.29)	- 여행자수표(TC)와 비슷한 여행경비 지급수단의 여행자카드 도입 - 외국 증권시장에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원주를 살 때 한은총채 신고의무 및 거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면제 - 창투사 등의 해외증권 취득 한도 확대(자기자본금 10%→30%) - 30대 계열기업의 지급보증 금지 규제 일부 완화 등
종합상사 '부채 200%' 신축 적용 방안 추진	산업자원부 (10.26)	- 종합상사의 단기무역신용에 대해서 신용공여한도 확대, 부채비율 200% 산정시 예외 인정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자회사 출자 등으로 생긴 장기고정부채는 부채비율산정에 포함
영세소프트웨어사업 지원 사업 계획' 확정, 발표	정보통신부 (10.26)	- 지방 8개 중소도시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신설, 소프트웨어사업자 밀집시설에 소규모 공용장비지원센터 설치 - 지역별로 각종 지원시설을 한 곳에 모아 지역 소프트타운으로 조성, 종합적으로 지원 등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제정 추진	공정거래 위원회 (10.25)	- 주요 내용 · 전자상거래 업자들의 이용자 주문에 대한 수신확인통지 의무화 · 이용자의 주문확인 후 3일 이내 주문 변경·취소 요청 가능 · 물품 인도 후 20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등
계좌추적권 대상 확대·시한 연장 추진	공정거래 위원회 (10.25)	- 2000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현재 2001년 2월까지로 돼있는 계좌추적권의 시한 연장과 더불어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건설교통부 (10.25)	- 준농림지역 공동주택 규제(3만㎡ 범위내 허용), 오염도가 높은 공장 설치 제한, 준농림지역내 개발계획 제도 수립,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음식점·숙박업소 설치 제한 등

주요 정책 정보(1999. 11. 1 ~ 11. 7)

11. 3(수)	○(건설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발표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 공사와 바닥면적 합계 1만㎡ 이상인 건축공사에 한해 건교부장관의 현장 점검 가능, 공공건설 공사 설계자문위에 시민단체 대표 참여 - 벌칙조항 보완, 강화: 수주공사 실적 평균 90점을 받는 업체에 한 해 평가대상 업체의 10%내에서 우수업체를 지정,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벌점 유효기간 축소(3년→2년) 등
11. 4(목)	○(한국은행) 11월중 통화정책방향 발표 - 금융시장 안정(저금리 기조 유지)에 정책 우선순위를 맞추는 한편 채권시장 안정 대책 부분이 추가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